

예술영화 만나러 미술관으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해설이 있는 영화 상영회, 강좌 31일부터 풀 세잔·장승업 등 7회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취화선’, ‘고흐, 영원의 문에서’...

거론된 작품들은 예술영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들의 삶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세잔, 고흐, 장승업 등은 시대가 낳은 세기의 화가들이다. 그들의 위대한 작품과 극적인 생애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주고 있다.

대가들의 삶과 작품을 영화와 강좌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하정웅미술관은 ‘2023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를 3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7회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서구 농성동) 2층 명예관장실.

이번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한편 드라마틱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었던 7명의 대가를 만난다. 풀 세잔을 비롯해 장승업, 반 고흐, 데이비드 호크니 등의 작품과 삶을 매개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예술영화 상영회는 이상훈 부산국제현대영화제 예술감독, 영화평론가 조대영 씨 해설로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진행된다. 올해 첫 강사로 초청된 이상훈 감독은 현재 부산국제현대영화제 프로그래머로 10년 이상 활동했다. 영화평론집 ‘영화, 토크’를 펴낸 조대영 씨는 동구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또한 ACC에서 진행중인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에 20여 년 이상 수집, 소장해온 비디오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조대영 평론가는 “영화를 매개로 작품의 시대적 분류, 분석 외에도 화가들의 생애와 뛰어난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영화와 그림이라는 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유사성 또는 상이성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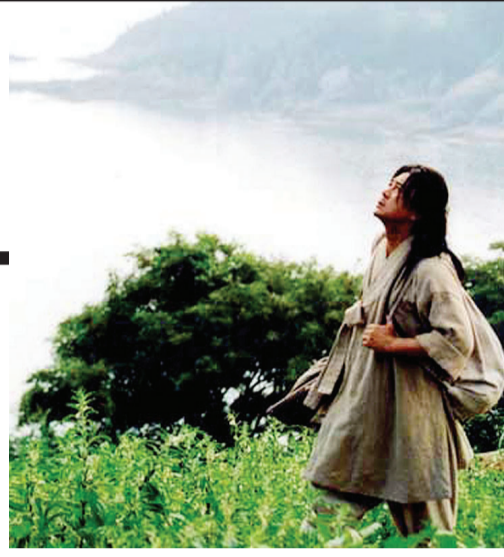
먼저 31일 첫 시간에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화가 풀 세잔의 예술노정을 비롯해 세잔과 작가 에밀 졸라의 우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역상프로방스로 대표되는 남프랑스의 풍광이 세잔의 작품과 소통, 연결되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삶의 궤적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6월 28일에는 ‘취화선’을 통해 19세기 조선 화가 장승업의 불우한 인생사를 회화 작품 중심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7월 26일에는 지난 2016년 제작됐던 파올라 모더존 베커의 삶을 그린 ‘파올라’를, 8월 30일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담은 ‘클림트’를 살펴본다.

9월(27일) 작품은 ‘고흐, 영원의 문에서’ 당대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본



‘취화선’

것을 남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반 고흐가 남긴 미의 세계를 만난다.

까미유 끌로델이 등장하는 ‘까미유 끌로델’은 10월(25일) 만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영화 상영회는 무료이며 5월부터 8월은 이상훈 씨가, 9월부터 11월은 조대영 씨가 나눠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예술영화 상영회는 미술영화를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화 메커니즘을 비롯해 분석, 작품 해설에 초점을 두고 다각도로 진행된다”며 “무엇보다 관람객과의 토론과 질의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대 광주 예술의전당장에 윤영문 음악협회 광주지회장

윤영문(사진)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장이 리모텔링을 거쳐 다음 달 새롭게 개관하는 광주 예술의전당(옛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초대 전당장(개방형 4호 지방서기관)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



신임 윤 전당장은 목포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음악학 석사, 광주대학교 연주학(합창 지휘)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기정 시장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윤 전당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당장은 예술의전당 업무 종합 기획, 시립예술단 운영, 공연 관리 등을 총괄한다.

신임 윤 전당장은 한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광주합창연합회 고문,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광주MBC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광주동신중·고등학교 음악 교사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광주문화회관의 명칭은 지난 91년 개관한 지 32년만에 광주 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문화회관은 개관 이후 공연장 무대를 비롯해 객석, 각종 설비 등이 낡아 시민높이이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부터 290억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문화회관이 지난 2월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3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답자의 35.6%가 새 명칭으로 광주 예술의전당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빛고을 예술의전당’이 뒤를 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복원 모델 도출’

31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옛 전남도청 전시 콘텐츠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복원 모델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에 구현될 전시콘텐츠의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505억 원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전시콘텐츠를 구성해 오는 2025년 개관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전시콘텐츠 사업비는 약 110억 원으로 철저한 고증 등을 통해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제1부에서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

단의 ‘전시콘텐츠 구현한 추진 경과’를 비롯해 (주)리서치립의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의 ‘복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하나의 제안’, 이 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의 ‘방문객 입장에서 본 전시와 운영’이 발표된다.

제2부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박경섭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홍성섭 복원대책위 집행위원장,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김꽃비 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송운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옛 전남도청의 구체적인 전시 구현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복원추진단은 국민과 유관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충실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출판협회 “전자책 5천여종 유출...출판 근간 흔들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과 관련해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전자책 탈취는 출판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책 파일 유출은 종이책을 도둑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만약 탈취된 파일이 추가로 유출된다면 출판계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가운데 한 곳인 알라딘은 최근 전자책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한 상태.

조사 결과 5000여종의 전자책이 3200여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유출된 사실을 저작권보호원이 확인했다고 출판협회는 전했다. 저작권보호원과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소록도 해륙예술회원·한국미술협 고흥지부 회원 연합

14일까지 남포미술관 별관

현대사회 예술의 화두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경계 허물기’가 아닐까 싶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추세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오늘의 사회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남포미술관이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14일까지 별관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2023 박물관·미술관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는 소록도 해륙예술회원 12명과 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 15명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전시로 진행돼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소록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았다. 남포미술관은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보인 주민들은 2016년 소록도 최초 예술단체인 해륙예술회를 결성했으며, 이후 26회의 전시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번에도 해륙예술회원의 출품 작품은 모두 24점, 지난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두 명의 강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주 4일씩 20회 지도를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옥신 작 ‘숲속 이야기’

이번 전시는 문제부와 아이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며 남포미술관은 전시를 운영한다.

한편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은 “이번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전은 강사와 해륙예술회원 등의 협업으로 마련한 예술의 결과물”이라며 “서로 소통과 연대로 결실을 맺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작품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

시민단체, 엄중 수사 탄원서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 3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개인 678명과 102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3인 협회 제명과 예술교육 중지 조치, 지원사업 중지 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면서도 “고발 이후 2차 가해가 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 연극계, 예술계 배우들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길 바란다”며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가해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승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연극계 지도자와 감독자 등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저지른 이른바 ‘위력에 의한 문화예술계 권력형 성범죄’다. 이는 연극계 내의 권력적 구조나 위력 관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왜곡된 성윤리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